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44

평양 자료의 기초 연구

읍지와 시문(詩文)을 중심으로

이은주 지음



평양 자료의 기초 연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44

평양 자료의 기초 연구

읍지와 시문(詩文)을 중심으로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10일

지은이 이은주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205-5 94910

978-89-521-1028-2 (세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저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IKS-2020-452-31205:
평양 자료의 기초 연구 - 읍지와 시문(詩文)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총서 44

평양 자료의 기초 연구

읍지와 시문(詩文)을 중심으로

이은주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A Basic Study of Data on Pyongyang

Focusing on Town Chronicles and Literary Works

Yi Eun-ju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머리말

그동안 지역 문학, 특히 평양의 시문 연구에서 읍지 자료를 활용했었는데, 필자가 지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세기 죽지사 「관서악부(關西樂府)」로 학위논문을 쓰면서부터다. 문학 영역 중에서 특히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때때로 외로운 싸움을 벌일 때가 있다. 전근대 시기의 문학 텍스트는 성격상 현대의 ‘문학’ 범주를 벗어나는 내용까지 담는 탓에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볼 때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자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학 연구자라면 문학적인 방법론을 포기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의 결과 필자는 문학의 특수한 측면을 도출하고, ‘심상지리(imagined geographies)’라고도 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포착해 내기 위해 비문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에서 해당 지역을 어떻게 ‘달리’ 바라보는지 비교하는 것을 작은 목표로 삼게 되었다.

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세웠지만, 평양 연구 과정에서 시문이라는 문학 자료보다 읍지라는 비문학 자료를 더 많이 읽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더군다나 읍지에 나타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거나 깨달은 것도 상당히 많다. 1590년과 1730년 평양 읍지를 읽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통시적 변

화에 눈을 떴고, 읍지의 정보를 통해 문학작품으로서의 「관서악부」가 평양의 현실 그대로를 담은 것이 아니라 이를 낭만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 지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이해할 때 그 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절감했다. 도시의 여러 정보 중에서 작가가 무엇을 선택하여 이를 문학작품에 어떻게 변용했는지를 파악할 때 지역의 세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두 읍지의 번역본은 2016년에 나왔는데, 이 번역 작업으로 평양의 시대적 변천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지만, 이때만 해도 이후 19세기나 20세기까지 확장하여 평양의 도시적 변천 과정을 연구할 계획은 없었다.

이 책을 쓴 직접적인 계기는 2019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기성도병(箕城圖屏)〉 도록의 논저를 작성한 덕분이다. 평양 지역의 병풍도에는 각종 건물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서 이것을 읍지 정보와 조합하면 공식적인 도시의 구성 및 배치와 통시적인 변천을 함께 볼 수 있겠다 싶었다. 또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892년 평양 읍지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이 읍지를 번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면서 읍지를 활용하는 연구자이자 읍지를 자세하게 읽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일지도 고민해 보았다. 읍지 자료를 통해 여러 영역의 연구가 합류하는 큰길을 만났고,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새로이 알게 되어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읍지는 분야를 막론하고 비중 있게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읍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여러 실무진이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읍지 제작에서는 관행이나 실무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읍지를 새로

간행할 때 전체 내용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기존 읍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직역’, ‘인구’ 등 간행 당시 분명히 달라졌을 내용조차도 수정하지 않고 이전 읍지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기도 했다. 한편, 시대적 상황이나 편찬자의 관점에 따라 과장되거나 은폐되는 정보도 있다. 또 기획 단계에서 항목을 설정하고 편집 기준을 정할 때 편찬자의 의도나 당시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야만 읍지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고, 수록된 사실 정보가 어느 시점의 내용인지도 변별해 낼 수 있다.

평양은 다양한 연구자가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므로 지역 자료 활용에서 이미 일종의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만큼 더욱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 평양 읍지에는 다수의 시문이 실려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읍지에 수록된 시문의 양상과 변화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평양 읍지의 편찬사를 정리하면서 각 읍지의 성격과 새로운 점, 유의할 점을 바탕으로 관련 항목들을 재정리했다. 1590년에 간행된 윤두수(尹斗壽)의 『평양지(平壤志)』와 1730년에 간행된 윤유(尹游)의 『평양속지(平壤續志)』는 이미 번역본도 나와 있고 해설이나 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그 후 19세기에 간행된 평양 읍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기 어려웠다. 회화 등의 시각 자료가 거의 대부분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19세기 읍지를 정리하는 작업은 동시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활용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또 평양은 20세기 이후 근대문학 발전의 맥락에서 자주 논의되는데, 20세기 평양 읍지의 양상은 모호한 상태이므로 관련 문헌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었다. 이 책에서 이 시기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만족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읍지는 그 특수한 정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의 읍지 활용에는 여러 오류가 뒤섞여 있고, 오류를 교정한 후속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설명이나 해제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연구에도 오류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지역 연구의 성격상 하나의 연속된 논점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 새로운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활용할 때 자료의 계통이 정리되지 않아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성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초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연구서가 있다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고하기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다.

평양 읍지는 1590년, 1730년, 1837년, 1855년, 1892년에 간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17세기나 18세기 후반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공백을 메우고 사실 정보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시문을 활용할 수 있다. 평양 관련 시문 중에는 읍지에 실리지 않은 작품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개인 문집이 전하지 않아 읍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읍지에 수록된 시문 자료는 읍지 편찬자들이 평양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취사선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선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평양을 소재로 하였으나 분량이 길어서 읍지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추가했는데, 각 작품의 해설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초기의 구상과 의도가 모두 이 책에 구현되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다. 여러 읍지의 항목을 재정리하고 내용을 보충한 1차 작업에 비해 시문을 정리한 2차 작업은 아쉬운 점이 많다. 애초에 읍지

와 시문은 그 위상이 같지도 않고 뚜렷하게 나눌 수도 없으므로 병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평양에서는 지역의 성격상 읍지에 시문이 많이 수록되었고, 이를 통해 사실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인식과 소소한 이야깃거리,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 평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기에 읍지 간행 사이의 공백기를 보완해 보고자 읍지에 수록된 시문 가운데 평양을 언급한 여러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은 평양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시문을 집대성했다기보다는 읍지에 수록된 시문을 정리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시문을 일부 정리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실제와 부합할 것이다. 또 20세기 이후 평양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위기에서 전근대와 근대 이후 평양의 도시적 구조와 관심사가 어떻게 변모하는지에 주목하여 전근대와 근대 연구가 어떻게 점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II. 시문편’에는 문학 연구자의 관점과 관심사가 어느 정도 녹아 있다. 부록에는 이미 발표한 논문 한 편을 재수록했는데, <기성도병>의 경관과 읍지 정보를 조합할 때 새롭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탐색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의도를 대변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분들이 많다. 평양 읍지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읍지를 번역하고 일련의 논문을 작성하고 재구성하여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동안 평양 읍지를 활용해서 논문을 쓸 때마다 여러모로 조언해 주신 여러 심사위원께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평양을 매개로 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든든한 느낌도 든다. 소장품을 통해 평양의 세부 경관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송암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의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더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해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은 여러 심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10월

이은주

차례

머리말 / v

I. 읍지편	1
1. 평양 읍지 개관	1
2. 1892년 『평양속지』의 성격과 특징	18
3. 평양 읍지에 반영된 도시의 변화상	52
1) 성곽과 행정구역 / 52	
2) 산과 하천 / 71	
3) 누대와 사묘, 학교 / 79	
4) 연혁, 공서, 직역, 병제, 창저, 교방 / 91	
5) 지역민 수록 명단 / 107	
6) 관찰사와 서운 명단 / 112	
4. 20세기 전반기 평양의 모습	122

II. 시문편 143

1. 읍지에 수록된 시문 / 143

1) 시문의 출전 문제 / 144

2) 시문의 소재 문제 / 147

3) 평양에 온 청나라 사신 / 177

4) 선대의 유업을 계승한 관찰사 / 206

2. 사행록과 시문의 평양 관련 서술 / 210

1) 사행록의 평양 관련 서술 / 210

2) 읍지 수록작 외 평양 관련 시문 / 229

3. 조선시대 평양의 역사 명소와 관심사의 변화 / 240

1) 평양 명소의 시대적 변천과 공간 재편성 / 240

2) 외부인과 지역민의 역사 명소 인식 / 251

4. 20세기 전반기 문학에 나타난 평양의 공간성 / 266

1) 여행객의 공간에서 일상의 공간으로 / 267

2) 근대의 새로운 평양 / 278

부록: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병〉 고찰 / 295

참고문헌 / 327

찾아보기 / 335

Abstract / 361

발간사 / 367

표 차례

표 1. 1892년 이전의 평양 읍지	3
표 2. 1905년과 1906년의 평양 읍지	7
표 3. 20세기 전반기의 평양 읍지	12
표 4. 역대 평양 읍지의 수록 항목	16
표 5. 1590년과 1892년 평양 읍지의 항목 순서 비교	26
표 6. 1892년 읍지의 ‘도로’ 항목	44
표 7. 1892년 읍지의 ‘나루’ 항목	45
표 8. 1892년 읍지의 ‘장시’ 항목	47
표 9. 역대 읍지의 연못 존폐 상황	62
표 10. 역대 읍지의 행정구역 변화	63
표 11. 역대 읍지의 ‘도구’ 항목	71
표 12. 역대 읍지의 ‘산’ 항목	73
표 13. 역대 읍지의 ‘하천’ 항목	75
표 14. 역대 읍지의 ‘섬’ 항목	77
표 15. 역대 읍지의 ‘바위’ 항목	78
표 16. 역대 읍지의 ‘누대’ 항목	81
표 17. 역대 읍지의 ‘사묘’ 항목	86
표 18. 역대 읍지의 ‘학교’ 항목	90
표 19. 역대 읍지의 ‘연혁’ 항목	92
표 20. 역대 읍지의 ‘공서’ 항목	94
표 21. 역대 읍지의 ‘직역’ 항목	96
표 22. 역대 읍지의 ‘병제’ 항목	99
표 23. 역대 읍지의 ‘창자’ 항목	104
표 24. 역대 읍지의 ‘교방’ 항목	107
표 25. 역대 읍지의 지역민 관련 내용	107
표 26. 역대 읍지의 별시 관련 내용	111
표 27. 역대 읍지의 외관직 관련 내용	111
표 28. 평안도관찰사 명단	112
표 29. 평양서윤 명단	118

표 30. 20세기 초 읍지의 인구 상황	128
표 31. 1932년 『평양부』에 나타난 20세기 초의 인구 상황	129
표 32. 20세기 초의 전차 상황	135
표 33. 20세기 초의 수도 상황	135
표 34. 20세기 초 평양부 안팎의 육로 상황	136
표 35. 20세기 초의 수로 상황	137
표 36. 20세기 초의 철도 상황	137
표 37. 1934년 『평양대지』에 수록된 주요 건물과 소재지	139
표 38. 1590년 읍지에 수록된 시	152
표 39. 1590년 읍지에 수록된 산문	162
표 40. 1730년 읍지에 수록된 시	164
표 41. 1730년 읍지에 수록된 산문	171
표 42. 1837년 읍지에 수록된 시	181
표 43. 1837년 읍지에 수록된 산문	182
표 44. 1855년 읍지에 수록된 산문	185
표 45. 1892년 읍지에 수록된 시	187
표 46. 1892년 읍지에 수록된 산문	193
표 47. 관찰사 중 여흥 민씨 일원	208
표 48. 연행록에 제시된 평양 관련 기록	212
표 49. 평양 관련 시문	231
표 50. 일부 사행록에 나타난 평양의 방문처	248

그림 차례

그림 1. 평양 조감 사진	53
그림 2. 평양부 약도	53
그림 3. 1590년 읍지의 <평양폭원총도>	55
그림 4. 『해동지도』 평양부 ‘적두산성’	55
그림 5. 『해동지도』 평양부 ‘장안성’	55
그림 6. 전란 전후의 평양성 구조 비교	58
그림 7. 평양의 고도	58
그림 8. 승성	60
그림 9. 『여지도』에 나와 있는 평양 4부	66
그림 10. 『청구요람』에 나와 있는 평양 4부	66
그림 11. 『광여도』에 나와 있는 평양의 ‘인흥부’	68
그림 12. 『관서총도』에 나와 있는 평양 주변 지역	70
그림 13. 『청구요람』의 평양부	70
그림 14. <기성도병>에 나와 있는 ‘설씨당’	91
그림 15. 조선총독부의 『1935년 조선 직할하천 공사 연보(1938년)』에 수록된 대동강 개수공사 평면도	138
그림 16. 1730년 『평양속지』에 나와 있는 평양 서남부	250
그림 17. <기성도병>에 나와 있는 평양 서남부	255
그림 18. 『지승』에 나와 있는 ‘평양윤’	263
그림 19. 『조선여행안내』에 수록된 <평양부시가지도>	288
그림 20. 『조선만주여행안내』에 제시된 평양 관광 명소	292
그림 21. <기성도병>	300
그림 22. <기성도병>에 나와 있는 ‘사영사’	302
그림 23. <평양도>에 나와 있는 ‘관제묘’	303
그림 24. <평양성도>에 나와 있는 ‘서묘’	303
그림 25. <기성도병>에 나와 있는 ‘사창’	304
그림 26. <기성도병> 제1-3폭	307
그림 27. <기성도병> 부분	308
그림 28. <평양성도> 부분	308

그림 29. <광여도>에 표시한 제너럴서면호의 이동 경로	313
그림 30. <평양성도>의 사영사 자리	317

I. 읍지편

1. 평양 읍지 개관

평양 읍지의 편찬사를 정리할 때 가장 유용한 자료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전국 여러 읍지를 판본별로 정리해 영인한 『(조선시대) 사찬읍지(私撰邑誌)』이다.¹ 이 자료는 전국의 읍지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또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어 실물 확인이 불편한 자료들을 영인본의 형태로 출판하여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평양으로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1949년에 평안남도 초대 도지사를 지낸 김병연(金炳淵, 1896-1965)이 1964년에 간행한 『평양지(平壤誌)』²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자료는 조선시대 평양 읍지에 일제강점기에 나온 자료를 정리하고 간행 당시의 평양 상황도 추가한 것이다. 이 두 자료가 수록한 읍지는 비슷하다. 1590년 간행한 『평양지』 9권, 1837년에 간행한 『평양속지(平壤續誌)』 5권, 1855년에 간행한 『평양속지』 2권을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1. 이태진·이상태 편, 『(조선시대) 사찬읍지』 45-54책(한국인문과학원, 1989).

2. 金炳淵 編, 『平壤誌』(平南民報社·古堂傳·平壤誌刊行會, 1964).

사찬읍지』에는 여기에 1905년에 간행한 『평양속지』 3권이 더 들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837년 읍지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권두에는 1730년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丁酉(1837)孟春箕營重刊”이라고 적혀 있어 1730년에 1차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5권의 읍지를 1837년에 다시 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730년에 간행한 읍지 4권³에 부분적으로 내용을 증보한 뒤 1권을 추가하여 총 5권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는 해도 두 읍지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찬읍지』와 『평양지』는 1730년 읍지를 빼고 1837년 읍지만 수록했으며, 기존의 읍지를 합권하여 전하는 자료들⁴도 마찬가지이다. 1837년 읍지에 이미 1730년 읍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해서 수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자료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19세기에 나온 읍지 중에서 1892년에 간행한 『평양속지』는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고 또 분량이 많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자료이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남정철(南廷哲, 1840-1916)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그는 자신이 편찬한 『평양속지』의 의의를 서술하면서 기존의 읍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선조 경인년(1590)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공이 실로 처음 만들었다. 이후 141년이 지나 영조 경술년(1730)에, 또 108년이 지난 헌종 정유년(1837)에, 19년이 지난 철종 을묘년(1855)에 세 차례에 걸쳐 속지를 만들었다.⁵

3. 1730년 읍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평양속지』(古 4790-1)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평양지』(奎 488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평양지』(K2-4326).

표 1. 1892년 이전의 평양 읍지

권수제	편자	간행 시기	구성	비고
平壤志	尹斗壽	1590	9권	
平壤續志	尹游	1730	4권	
平壤續志	-	1837	5권	1730년 읍지에 1권 추가
平壤續志	-	1855	2권	
平壤續志	南廷哲	1892	3권	

1590년에서 1892년까지 읍지는 평안도관찰사의 승인 아래 평안 감영에서 간행했으므로 평안도관찰사로 와서 『평양속지』 편찬에 매진한 남정철의 언급이 가장 공신력 있을 것이다. 1892년까지 간행된 평양 읍지의 서지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⁶

이제 1892년까지 간행된 『평양지』, 『평양속지』의 성격을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1588년에 부임한 윤두수는 이전에 『연안지(延安志)』를 편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평양지』의 체제를 만들었고, 이 체제는 1855년 읍지까지 이어졌다. 『평양지』는 36개 항목과 시문을 수록했는데, 윤두수의 관심사였던 『기자지(箕子志)』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신들의 경유지라는 지역의 특수한 장소성 덕분에 이곳에서 지은 시문이 대거 수록되었다. 1730년에 간행된 『평양속지』의 편자는 1727-1729년에 평안도관찰사로 재임했던 윤유(尹游)이다. 윤유는 윤두수의 5대손이자 선조(先祖)와 같은 직책

5. 南廷哲 編, 『平壤續志』(1892), “宣廟庚寅梧陰尹公實始冊之. 後一百四十一年而至英宗庚戌, 又一百八年而至憲宗丁酉, 十有九年而至哲宗乙卯, 凡三續焉.”

6. 이은주 역주, 『평양을 담다: 역주 《평양지》·《평양속지》』(소명출판, 2016). 이 책의 「해설」에서 평양지의 계통과 서지사항을 개관했으나 1892년 『평양속지』를 발견하면서 다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은주, 「평양 읍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한문학회연구』 77(한국학문학회, 2020)에서 1906년 읍지까지 보완·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을 맡은 특별한 인연으로 『평양속지』 편찬에 착수했다. 시기적으로 1590년과 1730년 사이에는 전란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 평양성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므로 이 읍지에는 전란 경험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1837년과 1855년 『평양속지』의 편찬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두 읍지 모두 권말에 감영에서 간행했다는 간기가 있고 또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읍지 편찬의 책임자가 관찰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35-1837년에 재임한 이기연(李紀淵)과 1853-1855년에 재임한 이경재(李景在)의 승인 아래 편찬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⁷ 앞서 언급했듯이 1837년 읍지는 1730년 읍지에 내용을 덧붙여서 만든 것이므로 이 자료를 읽을 때는 유의해야 한다. 맨 뒤의 권5만 새로 추가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전 범위에 걸쳐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두 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 책에서는 항목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1837년 읍지의 변화를 서술할 때 1730년 읍지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제시할 것이다. 1855년 읍지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생략했고 사당과 인물 명단, 건물 중수기 등을 주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1892년에 간행된 『평양속지』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고 구상함으로써 『평양속지』의 관행을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목 설정 및 배열 순서에 대해서도 고심했고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도 주목할 만하고, 1730년 읍지 이후로 사라졌던 제영시(題詠詩)를 다시 수록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이 읍지는 최근에 발굴되기도 했고, 또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점이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1892년 읍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 자료는 숭실대학교 도서관에 전질(A 915.1

7. 이은주 역주, 『평양을 답다: 역주 《평양지》·《평양속지》』, 24면.

윤22705평임)⁸이 소장되어 있고,⁹ 동일한 판본이 전기박물관(1309-1311)에 소장되어 있다. 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2권 1책의 낙질본(화산 B10 A95aA 1)이 소장되어 있다.¹⁰ 1892년 읍지의 상당 부분이 1905년 읍지에 세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연이 『평양지』를 간행할 때에도, 이후에 『사찬읍지』에서 평양 읍지 자료를 영인할 때에도 누락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후대에 명확하게 인지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

1892년 이후의 읍지 간행은 약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검색 가능한 자료 중에서 성격을 알 수 없는 자료가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평양군읍지』(奎 10923)는 맨 앞에 <평양경내전도(平壤境內全圖)>가 나오고 제목이 ‘평양군읍지(平壤郡邑誌)’이며, ‘창저(倉儲)’와 ‘학교(學校)’ 항목에서 “甲午更張” 또는 “甲午以後”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평양이 행정구역상 군으로 분류되었던 1895-1910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규장각 해제에서는 1899년 읍지상송령에 따라 제작한 읍지로 보고 있는데, 상황상 급하게 제작한 자료라고 해도 평양 읍지 편찬사에 넣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 자료는 ‘부방(部坊)’과 ‘영속(營屬)’, ‘호구(戶口)’에서 내용이 달라졌고, 마지막 부분에 ‘광산(曠産)’을 추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1590년 『평양지』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발췌한 수준이다. 『평양지』 4권 ‘고사(古事)’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문과(文科)’와 ‘환적(宦蹟)’ 항목을 제외했다. 극히 일부 대목에서 내용을 수정했지만 당시의 변화를 항목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

8. 이 자료는 1892년에 간행되었다는 간기가 있지만 1893년 내용도 들어 있어서 이은주의 「평양 읍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는 복각본으로 추정했다. 동일한 시기의 읍지에서 내용의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주, 「평양 읍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5-127면 참조.

9. 일본 국회도서관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40-10>, <242-10Ⅰ>).

10.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VII-2-241)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2권 1책의 낙질본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읍지는 분야를 막론하고 비중 있게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여러 실무진이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읍지 제작에서는 관행이나 실무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시대적 상황과 편찬자의 의도나 당시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므로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읍지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 평양은 다양한 연구자가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므로 지역 자료 활용에서 학제 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더욱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20세기 평양 읍지의 양상을 관련 문헌들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평양 읍지에 수록된 시문의 변화와 양상을 한 축으로 하여 평양의 당시 모습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값 41,000원

ISBN 978-89-521-3205-5

978-89-521-1028-2 (세트)